

5~6월은 차밭기행의 달

차 향기 가득한 5월이다. 요즘 남도의 차재배 농가에는 정성스레 찻잎을 따서 말리고 무쇠솥에 덫는 손질이 분주하다. 차 생산기인 5-6월이면 굳이 차인이 아니더라도 차밭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 하지만 드넓게 펼쳐진 차밭만 보고 돌아온다면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직접 차 만들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을 살펴본다.

야생 작살차로 이름 높은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이 다항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백운산 야생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다압면에는 12개 마을 250농가에 서 작살차를 재배하고 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관내 율령면 등

차향가득, 가족애 푸릇 푸릇

곡리 담곡마을 이순영 씨 차밭을 비롯, 옥동·진상·다압면 등에서 수제차 제조과정 체험과 생활다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차 만들기 체험은 1박2일 코스로 운영되며 완성된 녹차는 농가에서 마무리해 해당 가정에 배달해준다. 참가비용은 1인당 1만원이며 생업을 구할 경우 차입값은 별도로 받는다. (061)797-3324.

광양시 다압면 다압농협에서도 녹차 채취와 제다를 체험할 수 있는 '녹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가족 단위 신청자가 많으며 1일 과정으로 찻잎 따기, 차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061)772-4006.

전남 해남군 북일면의 설아다원은

5-6월 동안 '전통 차 문화체험' 프로그램 선보인다. 이 곳에서는 유기농으로 지은 찻잎을 직접 따서 차를 만든 후 다원 내 마련되어 있는 다실에서 자신이 만든 차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제다 공장 견학과 차 마시는 예절을 배워보는 '다례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떠난다면 인근 대흥사와 일지암, 다산초당 등도 연계해 둘러볼 만 하다. 자신이 만든 차는 가져갈 수 있으며 일반 2만원, 학생(중등 이하) 1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061)533-3083.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에 가면 무려 22만평에 이르는 야생차밭인 '징광다원'이 있다. 이곳 징광다원에서는

전통수제차 제다공방 뿐만 아니라 천연 염색과 징광공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작업공방이 마련되어 있다. (061)857-5064.

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인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은 녹차 재배하는 농가가 1천여 곳을 헤아리며, 무료 차 시음장과 체험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다원도 많다. 그 중 여러 드라마와 CF 등으로 유명한 대한다압의 보성다압과 전국적으로 차 시음장을 갖추고 있는 화계제다 등이 유명하다. (표 참조) 여수령 기자

차 체험 가능한 곳

경 남	전 화
고려다원	055-883-2270
도심제다	055-883-2262
만수제다	055-883-1696
명인다원	055-883-2216
매암다원	055-883-3500
쌍계제다	055-883-4229
화계제다	055-883-2233
한밭다원	055-883-2288
효월수제차	055-882-6247
전 남	전 화
광양 다압농협	061-533-3083
광양시 문화홍보실	061-797-3363
남도야생차지	061-721-3752
동양다원	061-852-2255
동양다원 영농조합	061-857-5064
대한다압	061-862-2593
보성제다 영농조합	061-863-4116
북제다원	061-863-1117
해남 설아다원	061-533-3083



청주불교방송 '조선 찻사발전'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의 개국 7주년 및 사육이전 기념 특별전 '500년 만의 귀향-조선 찻사발전'이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오다노부나가와 함께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다케다신겐(武田信玄) 장군이 사용했던 찻사발을 비롯해 조선

찻사발 5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날인 8일 오전 11시에는 일본 노무라 박물관 학예부장 타니(谷) 씨와 고려미술관 김과광 씨의 강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반출된 후 5백년 만에 돌아온 우리 도자기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043)294-5114

용화사, 세계승가 조사다례식

불법을 이어온 세계의 일체조사에게 차(茶) 공양하는 '세계승가 조사다례 및 목담문도 건당식'이 4월 26일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에서 봉행됐다.

목담문도회(대표 수월)가 주관한 이날 다례식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각국의 무명(無名)조사에게 불(佛)력 3월 8

일, 가을(음력 9월 9일)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용화사에서 4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승가조사당'에서 봉행된 다례식에서 주지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 사찰마다 그곳에 주석했던 조사에게 다례를 올리지만 용화사는 목담 큰스님이 세계의 이름없는 모든 조사들의 위목을 모시고 공양 올렸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우리 사찰 차 모임

부천 석왕사
다도회 '다인'

종교구분 없는 열린 심터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 경내에 자리 잡은 전통찻집 '다인'에서 열린 다도수업.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신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봤을 사찰 내 전통찻집 '다인(茶人)'.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다도 교육이 열린다. 석왕사 신도들뿐만 아니라 인근 중·고등학교의 선생님, 가톨릭대학에 다니는 수녀 등이 다인의 '수강생'들이다. 다인이 단순한 '사찰 찻집'이라는 종교색을 벗고 지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심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찰 행사 때 차 시음회, 공양

찾집이라고는 해도 내부 '육법공양팀' 발족위해 노력은 소박하다. 대어섯 개 남짓한 다과와 수업에 쓰이는 다구들을 제외하면 특별히 '장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다실을 '우리 집 거실이나 안방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숙 사범의 뜻을 읽을 수 있다.

다실 운영을 맡고 있는 이 사범은 찻집이 문을 연 후 일 년 동안 다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석왕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과 산악회, 사군자반처럼 다도회를 신형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

동안 50~60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고 올해부터는 사찰 행사 때 마다 차 시음회와 차 공양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찰을 처음 찾는 불자나 일반인들은 법회가 끝난 후 마땅히 실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다. 이 때 찻집에 들려 차 한 잔 마시다보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차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포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이 사범은 올해 내로 다도

모임인 '육법공양팀'을 발족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여러 사찰의 차 모임과 차 관련 행사를 찾아다니며 내실을 키워왔다. 올해 초 문막 황룡사에서 현대차를 직접 펼쳐 다는 이숙 사범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이날 예정이다.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차의 정신이 나를 낮추고 남을 도우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석왕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과 산악회, 사군자반처럼 다도회를 신형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

인터뷰

이숙 사범



수행의 일환, 마음 자세가 중요

석왕사 전통찻집 '다인' 운영을 맡고 있는 이숙 사범은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을 한다. 법당에 들러 기도와 절을 마친 후 찻집을 청소한 후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10여 년 전 우연히 배우게 된 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범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내로 다도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인 이 사범은 "앞으로 차 향기가 흠뻑 나는 내실 있는 다도회로 꾸려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해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 지난해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